

김장 김치

아직 추운 겨울 아침에 김장을 하러 엄마랑 나만 할머니집에 들렀다.
모빠는 학원 갔다가 친구랑 놀려고 해서 안 갔고, 아버지는 일 때문에 안 갔다.
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외삼촌 가족만 있었다. 외삼촌이랑 할머니, 이모 할머니께서
내복랑 김장할 때 쓸 재료를 준비하고 계셨다.
나는 외삼촌 애들과 놀아주었다. 첫째며나 있는데 첫째는 7살이고 둘째, 세째는 2살도
안 된 아이들이다. 첫째 동생이랑 색종이 접기를 했고, 셋째는 외삼촌한테 줄을 따라다녀서
외복로 바보살 때만 셋째랑 놀아주었다. 김장은 일요일에 하는 거라서 일요일 7시도
안 된 시간이 큰이모가족이 왔다. 큰이모가 오고 8시쯤 김장을 시작했다.
우리 열마, 외복로는 집에서 요리를 하셨다. 김장을 다 하고 내복을 먹었는데, 너무
꿀맛같고 맛있었다. 다 먹고 조금있다가 아버지가 오셨다. 김장이 끝났을 때
왔다고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. 정식을 먹고 큰이모가족은 ^{집으로} 가셨다.
김장도 끝내서 접미가고 싶었지만 할머니 집에서 더 있다가 저녁밥을
먹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.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죽은 음식이 너무
많아서 집으로 올라갈 때 고생을 했다. 그래도 보람찬 주말이었다.



하노코